

깨어있는 모든 순간이
당신의 소중한 눈을 위협합니다.

스마트폰, TV, 컴퓨터에 쉽게 노출되는 스마트 시대에
섯틈 없는 눈,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.

티에스 루테인으로
침침하고 흐릿한 눈을
선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하세요.



Fit Solution

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
생화학 · 물리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.



TOTAL
SWISS

토탈스위스코리아(주)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0 (역삼동, 토탈스위스빌딩)
TEL : 02-2051-8833 FAX : 0505-310-8833 www.totalswisskorea.com

제조사명 NAIE[NATURAL ALTERNATIVES INTERNATIONAL EUROPE] 판매업소명 토탈스위스코리아(주)

REV1.0(22.11)

선명하고 건강한 눈을 위한

Fit Solution

TS Lutein
티에스 루테인



티에스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제품입니다.

주원료 마리골드꽃추출물을 제공하는 분말 제품으로 루테인을 함유하여
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

기능정보 마리골드꽃추출물 : 노화로 인해
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
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내용량 170g

섭취량 및 섭취방법

- ✓ 1일 1회, 1회 1스푼(1.7g)을 직접 입에 넣어
드시거나 또는 물에 잘 섞어서 섭취하십시오.
- ✓ 티에스 뉴트리션 C, 티에스 바이탈리티와 함께
섭취하시길 권장 드립니다.



제품 특징



1
눈 건강의
핵심(황반)을 채우는
루테인 10mg 함유



2
잔류용매 걱정없는
저온 초임계 추출공법
마리골드꽃추출물



3
분말제형으로
누구나 쉽고,
간편하게 섭취



4
부원료
멜베리 함유

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
- ✓ 장시간 컴퓨터 작업 및 스마트폰을
오래 사용 하시는 분
- ✓ 눈이 침침하거나 흐릿해 고민이신 분
- ✓ 눈의 노화관리와 영양공급이 필요하신 분
- ✓ 장시간 일하거나 공부하느라 지친 직장인
- ✓ 장거리 운전, 장시간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

+ PLUS TIP

루테인이란?

마리골드꽃에서 추출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
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.

루테인의 섭취가
필요한 이유

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는
카로티노이드 일종

+

나이가 들수록
황반색소 밀도 감소

+

체내 합성 불가능

건강 정보

본 내용은 제품정보와 관련없는 일반적인
건강정보 내용입니다.

여러분의 눈은 안녕하십니까?

현재 염려하는 본인 건강관련

문제 1위, 눈 건강!

[출처] 2021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

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‘눈’

그러나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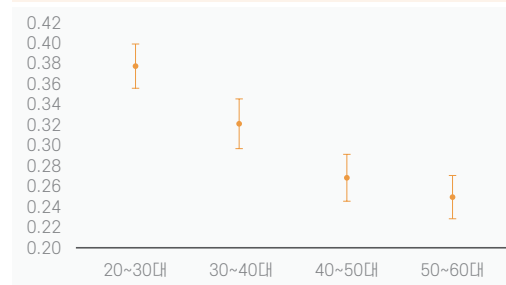
눈 속 황반색소 밀도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떨어집니다.

황반색소는 인체 스스로 합성이 불가능 합니다.

낮아진 황반색소는 인체 스스로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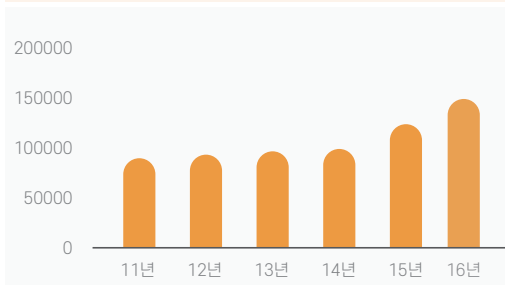
미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연령별 황반색소 밀도 변화



[출처] Risk Factors for age-related maculopathy are associated with a relative lack of macular pigment. 84(2007)61-741

연도별 ‘황반변성’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연평균 증가율(%) 10.0 상승 확인



[출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황반변성이란?

- ✓ 노화로 인해 망막에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
- ✓ 초기까지 전혀 자각증상이 없음

[출처] 질병관리본부

건강 정보

본 내용은 제품정보와 관련없는 일반적인
건강정보 내용입니다.

눈 건강을 위협하는 블루라이트

TV, 컴퓨터 등 스마트기기의 디스플레이와 LED 조명기기에서 방출되는
파란색 계열의 광원을 블루라이트라고 부릅니다.



스마트폰, TV로 눈을 혹사하는 환경

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가장 바쁜 ‘눈’
눈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.



대한민국 스마트폰
보급률 세계 1위

95%



주 평균
스마트폰 이용시간

13시간 25분

[출처] PEW RESEARCH CENTER REPORT
FEBRUARY 5, 2019

[출처] KISDI발간물 21-08